

일본 무역수지: 3 개월 연속 적자, 수출입 증가는 대부분 엔저·유가발 명목분

2026.08.20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일본의 7 월 무역수지가 3 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3.2%, 수입이 +27.8% 늘었다는 헤드라인만 보면 수출입 모두 활황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의 상당 부분은 실물이 아니라 가격과 환율이 만들어낸 착시다. 7 월 평균 엔·달러 환율은 161.83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11.2% 엔이 약세였고, 여기에 원유 등 에너지 단가 상승이 겹쳤다. 실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 수량은 +5.2%, 수입 수량은 +1.2%로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즉 명목 증가율의 상당 부분이 '더 많이 팔고 산 것'이 아니라 '같은 양을 더 비싸게 팔고 산 것'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수입 쪽을 뜯어보면 원유·조유가 수입 증가율에 +6.9%포인트를 기여했고 비철금속, 전자부품 단가도 함께 올랐다. 물량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금액만 급증한 구도는 전형적인 비용인상형 압력이며, 수입물가가 국내 물가로 전가되는 경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를 '내수가 강해서 수입이 늘었다'는 식의 수요견인형 인플레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역별로는 대미 무역흑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50.7%), 원인은 미국의 수요 약화가 아니라 미국산 원유·조유 수입이 급증(+1,489.2%, 기여 +41.6%포인트)했기 때문이며, 대미 수출 자체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오히려 +22.0% 늘어 5 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중 수출도 +25.8%로 늘었지만 절반가량은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제조장치가 견인한 것이고, 자동차 수출은 -34.0%로 크게 줄어 중국 최종수요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번 자료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논거를 약화시키는 내용은 아니다. 물량이 늘지 않는데도 수입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도는 일본은행이 최근 밝힌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를 뚜렷이 상회하고 상방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과 방향이 일치한다. 다만 이번 물가 압력의 성격이 비용인상형이라는 점에서, 급하게 긴축을 서둘러야 할 근거로 쓰기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쪽에 더 부합한다. 무역적자가 전년동월 대비 '+306%' 늘었다는 표현도 실제로는 적자액이 낮은 기저(전년동월 -1,562 억엔) 대비 약 4 배로 확대된 것일 뿐, 급격한 상황 변화를 뜻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엔화가 161 엔대에서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원유 단가 상승세가 이어지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수입물가 재가속 재료가 되어 추가 인상 논거를 보강하겠지만, 반대로 엔화나 유가가 되돌려지면 이번 적자 확대의 상당 부분은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미 원유 수입 급증이나 대 EU 항공기류 금감처럼 단발성 로트 요인이 섞인 항목들은 2~3 개월 흐름을 더 지켜본 뒤 추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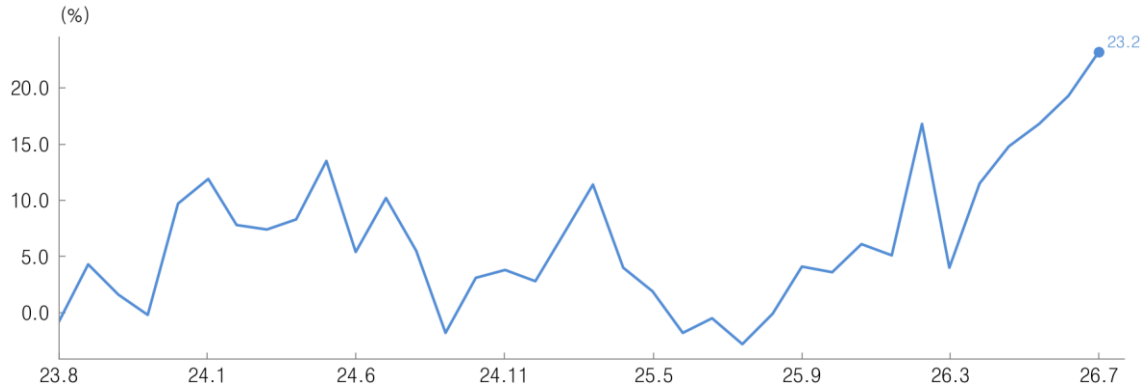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20 (이번)	일본의 2026 년 7 월 무역통계 속보치는 수출이 전년 대비 23.2%, 수입이 2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화려한 숫자의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량 증가가 아니라 엔화 약세와 에너지·부품 단가 상승이 만들어낸 명목상의 팽창이다. 실제 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5.2% 늘어난 데 그쳤고 수입은 사실상 보합인 1.2% 증가에 머물렀다. 무역수지는
2026-07-22	반도체 가격재평가와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의해 명목 수출은 +13.7%로 호실적처럼 보이나, 실질 수량은 +2.5%에 머물러 글로벌 수요 약화 신호이며, 특히 대중국 적자(-4.6T, +18.9% 악화)와 미국 약세는 일본의 구조적 포지션 악화를 의미한다.
2026-06-17	반도체 부품 조강세(+61~85% 주도)와 에너지 디스인플레이션(원유 -28.5%)이 수출을 수입보다 강하게 끌어올렸으나, 절대적 무역적자(-3,786 억엔)는 여전하고 대중국 적자 최대 근처(-6,497 억엔) 지속으로 구조적 개선은 일시적 에너지 효과에 마스킹된 상태.

JP_TRADE 2026 년 7 월 무역통계 — 명목 증가와 실물 증가의 간극

지표	수치 (2026-07)	전년동월비	맥락
수출액	11 조 5,118 억엔	+23.2%	11 개월 연속 증가, 자동차·반도체 부품 견인
수출 수량지수	112.2	+5.2%	실물 기준은 명목 증가율의 4 분의 1 수준
수입액	12 조 1,463 억엔	+27.8%	6 개월 연속 증가, 원유·부품 단가 상승 견인
수입 수량지수	106.6	+1.2%	사실상 보합, 금액 급증은 단가 요인
무역수지	▲6,345 억엔	+306.0%(적자 확대)	3 개월 연속 적자, 전년동월 적자(▲1,563 억엔) 대비 약 4 배
엔·달러 환율	161.83 엔/달러	11.2% 엔 약세	명목 수출입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
대미 무역흑자	2,804 억엔	▲50.7%	미국산 원유 수입 급증(+1,489.2%, 기여 +41.6%p)이 주원인, 대미 수출은 +22.0%로 견조
대중 무역적자	▲7,754 억엔	+27.2%(적자 확대)	64 개월 연속 적자, 수출은 반도체 부품 견인이나 자동차 수출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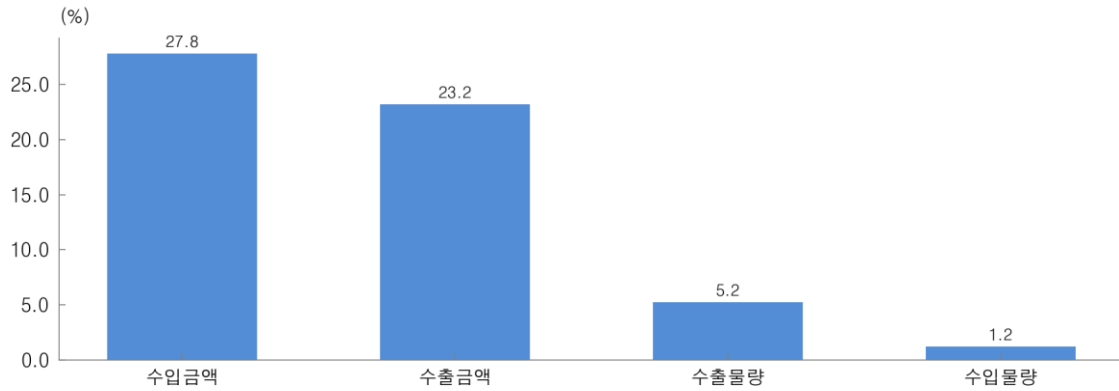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수출 전년대비[%]	23.2
수입 전년대비[%]	27.8
무역수지(억엔)	-6345.0

일본 월별 수출 증가율(전년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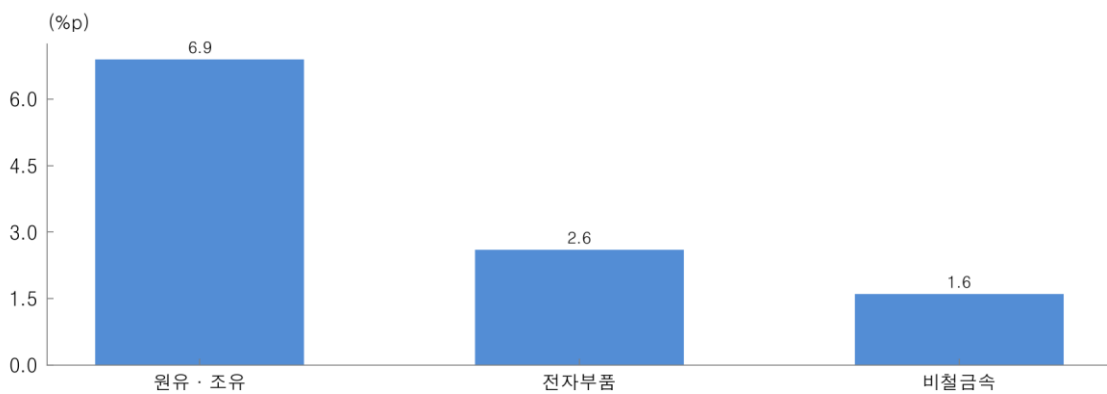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7월 수출입 명목 증가율 vs 물량 증가율(전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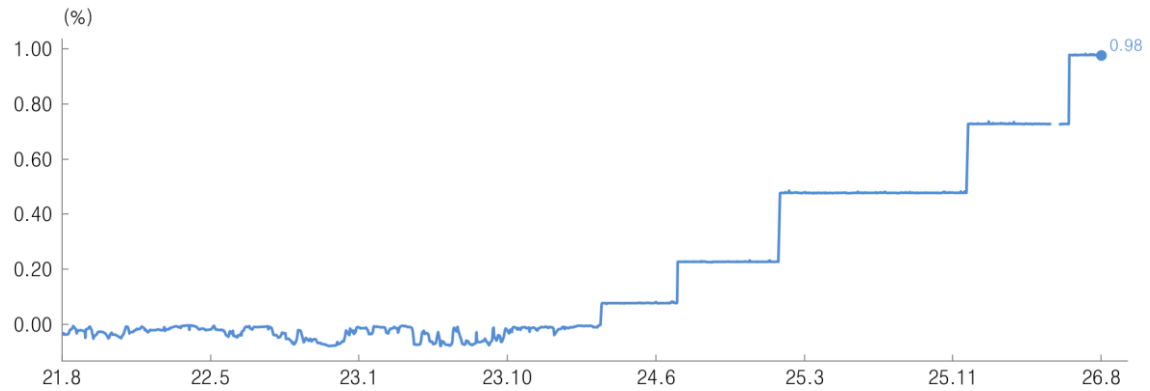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7월 수입 증가율 품목별 기여도(전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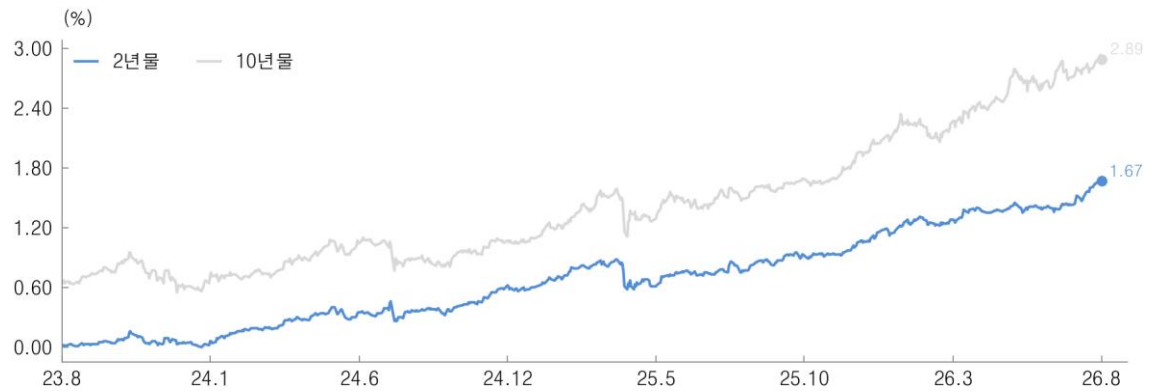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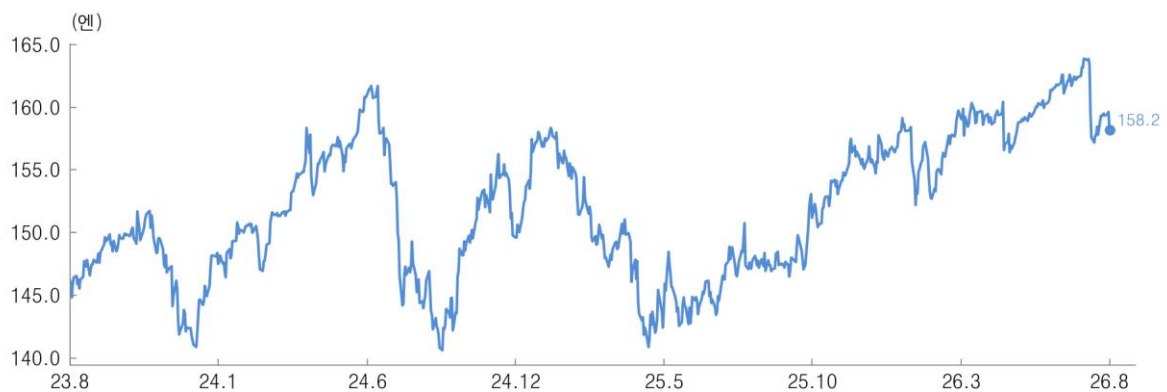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달러 환율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